

# 광주일고 ‘황금사자’ 품다

## 유창식 완봉 역투, 장충고에 1대0 승...통산 5번째 우승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가 5번째 황금사자 기 트로피를 품었다.

광주일고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제64회 황금사자기 장충고와의 결승에서 선발 유창식의 완봉 투구로 1-0 완봉승을 거뒀다.

3회초 광주일고의 방망이가 움직였다. 2사 1루에서 이현동의 적시타가 터졌다. 장충고 우익수 박종호가 외야 깊어 쫓아갔지만 글러브를 맞고 나오면서 이현동이 2루까지 질주했다. 그사이 1루주자 이동건이 홈을 밟아 1-0이 됐다.

선취점을 내준 장충고는 선발 정다환을 내리고 곧바로 에이스 윤영삼을 투입하며 분위기를 반전에 나눴다.

7회 광주일고의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다. 임영섭의 볼넷과 유창식의 좌전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3루의 추가 득점기회. 7번 박종호가 삼진으로 물러선 뒤 이동건의 타석 때

3루주자 임영섭이 포수 견제에 걸리면서 아웃됐다.

이동건의 안타성 타구는 우익수 글러브에 빨려들어가는 등 광주일고는 모처럼 찾아온 추가 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찬스를 놓친 뒤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7회말 유창식이 3번 사공엽에게 안타를 맞으며 처음으로 선두타자를 출루시켰다. 이

지혁의 땅볼로 1사 2루. 하지만 위기에서 에이스 유창식의 위력이 발휘됐다.

유창식은 묵직한 직구와 매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신민기와 대타 이재복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아마 마운드 1인자다운 위용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8회 다시 한 번 유창식의 노련한 투구가 돋보였다. 선두타자 황윤호의 2루수 앞 땅볼 때 유창식이 1루 베이스커버를 들어갔으나 아쉬운 관전이 나오면서 내야안타가 됐다.

이민호의 3루수 앞 땅볼 때 선행 주자를 아웃시키면서 1사 1루. 이후 성현기의 앞 땅볼을 잡은 유창식이 침착하게 2루에 공을 뿌리면서 병살타를 만들었다.

마지막 9회 첫타자 민원홍의 직선타구를 잡아 원아웃을 만든 유창식은 볼넷을 하나 내주기는 했지만 실점 없이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더해 경기를 마무리했다.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유창식은 3개의 안타로 장충고 타선을 막으며 완봉승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탈삼진은 8개를 기록했다..

유창식은 이번 대회 5경기에 출전해 29이닝 무실점의 무결점 투구로 최우수선수에 등극했다. 유창식은 타석에서도 23타수 10안타로 0.425의 타율을 장식하며 대회 최고의 히어로가 됐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고 재학생·학부모 600여명 응원 우승 한몫

광주일고 2년만의 황금사자기 재집권에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다.

황금사자기 결승이 열린 29일 잠실구장 1루석에는 한바탕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 광주일고를 응원하기 위해 재학생들과 학부모 등 600여명이 광주에서 올라와 관중석을 지켰다.

동문회의 후원으로 15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잠실을 찾은 응원

단은 경기 내내 광주일고를 연호하며 경기장을 들쭉이게 했다. 치어리더까지 동원된 열성적인 응원전이었다.

학부형들은 준비해온 떡과 과자를 관중석에 돌리며 아들들의 선전을 빌었다.

응원단이 관중석을 뜨겁게 달구었다면 덕아웃에는 난로가 지원군으로 등장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오늘 광주 홈개막전

## 선발 양현종, 삼성 용병 크루세타와 맞대결

## 오후 5시16분부터 식전행사 등 ‘팬 서비스’

광주에 야구 열기가 재점화된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30일 삼성 라이온즈를 광주로 불러들여 2010시즌 홈 개막전을 갖는다. KIA는 오후 5시16분부터 식전행사를 갖고 홈 개막을 축하한다.

선수들의 올 시즌 각오와 전지훈련 모습이 담긴 개막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행사에서는 31사단 소속 군악대의 공연과 10명으로 구성된 켈블러의 비보이

공연이 펼쳐진다. 가수 박현빈의 축하 공연도 열린다.

오후 4시부터 경기장 장외에서는 기아자동차 전시회와 구단 엠블럼과 다양한 캐릭터 그림 등을 바다 페인팅하는 에어 브러쉬, 팬서비스 오픈 지금 등 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5시30분부터는 윤석민 등 KIA 선수들의 팬사인회가 열린다.

개그맨 배동성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행

사에서는 오색 폭죽쇼가 열리고 호랑이 애드벌룬도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양팀 소개와 꽃다발 전달, 선수들의 사인볼 투척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KIA 선수들은 팬들과 함께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R차량을 타고 경기장에 입장한다.

개막 시구는 개그맨 이휘재, 시타는 텔런트 박솔미가 맡는다.

한편 KIA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입장하는 관중들에게 도루코 먼도기 등을 지급하며 스포티지 R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홈 개막전에 KIA 양현종이 삼성 크루세타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국내 평정 서희경, LPGA도 평정

## KIA클래식 12언더파 생애 첫 우승… 사상 19번째 비회원 챔피언

## 박인비 준우승, 신지애·이지영 공동 3위 등 한국계 톱 10에 6명

‘한국여자골프의 1인자’는 곧 세계 정상 서희경(24·하이트)이 미국 본토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위상을 떨쳤다.

2009년 KLPGA를 평정한 서희경은 29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의 라코스타 골프장(파72·662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클래식 마지막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치며 선두를 지켜 함께 12언더파 276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초청 선수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서희경은 올 시즌 한국군단에 첫 우승을 선사하며 LPGA 투어 사상 19번째 비회원 챔피언이 됐다. 가장 최근에는 홍진주(27·비씨카드)가 2006년 10월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스폰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우승했다.

마지막날 무려 7타를 줄인 박인비(21·SK텔레콤)가 2위(6언더파 282타)에 올랐고 신

지애(22·미래에셋)와 이지영(25)이 공동 3위(5언더파 283타), 재미교포 위성미(21·나이키골프)가 공동 6위(4언더파 284타)를 차지했다.

김승희(22·하이트)도 3언더파 285타로 10위에 올라 톱10에 6명의 한국 및 한국계 선수가 이름을 올리는 등 한국 국내 대회를 방불케 했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쳐 2006년 프로에 데뷔한 서희경은 2008년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다.

하지만 2008년 8월 하이원컵 SBS채리티 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의 물꼬를 튼 서희경은 하반기에 무려 6승을 쓸어들려 골프계를 놀라게 했고 2009년에도 5승을 올리며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석권, 명실상부한 국내 1인자로 자리 잡았다.

‘지존’ 신지애가 한국 무대를 평정하고 LPGA 투어에 진출, 지난해 상금왕에 오른

데 이어 서희경도 미국 본토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수준이 세계 정상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5타차 단독 선두로 여유있게 4라운드에 나선 서희경은 1번홀(파4)에서 1타를 잃기는 했지만 3번홀(파5)과 4번홀(파4) 연속 버디로 바로 타수를 만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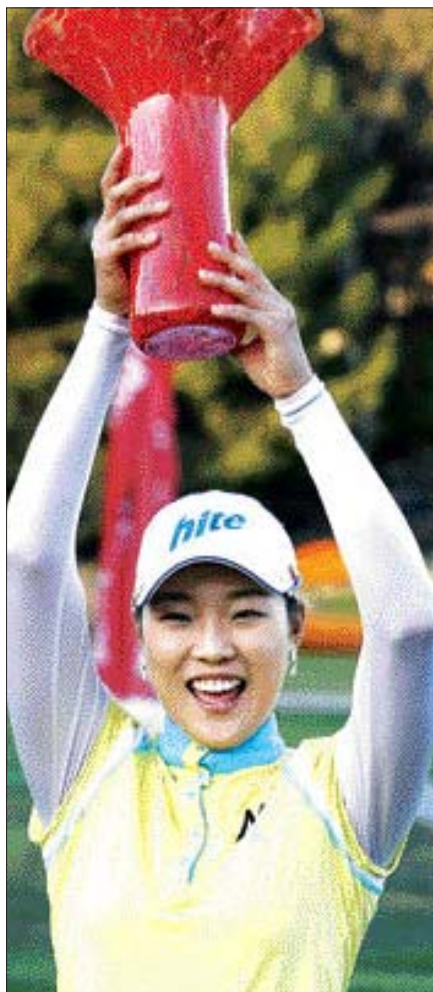
7번홀(파4)에서도 보기를 적어냈지만 8번홀(파5)에서 침착으로 버디를 잡아내는 등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풀어갔다.

서희경은 13번홀(파4)에서 짧지 않은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집어넣더니 14번홀(파4)에서는 침착으로 다시 1타를 줄여 우승에 쾌거를 바꿨다. 서희경은 16번홀(파3)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려 더블보기로 돌아왔지만 2위 그룹과 5-6타차를 유지했고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고 미소를 지었다.

위성미도 10번홀(파4)까지 2타를 줄이며 선두를 추격했지만 11번홀(파5) 워터헤저드에서 볼을 치다가 골프채가 지면에 닿는 바람에 2벌타를 받았다.

결국 2타를 잃고 돌아왔한 위성미는 이후 버디와 보기를 맞바꾸며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연합뉴스



서희경(24.하이트)이 29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코스타 골프장에서 열린 LPGA투어 KIA클래식 우승 후 트로피를 들어 해맑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탱크 최경주 8년 연속 마스터스 출전

## 양용은 등 한국선수 6명 출전

‘탱크’ 최경주(40)가 2010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명인들의 열전’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 8년 연속 출전한다.

최경주는 29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베이힐 골프장(파72·7381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합계 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쳤다.

비로 인해 다른 선수들의 경기는 순연됐지만 공동17위에 오른 최경주는 20위 이내 입상은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 종료 시점에 최경주의 세계랭킹은 48위가 될 전망이다. 세계랭킹 50위 안에 드는 선수들에게 주는 마스터스 출전권을 받게 된다. 최경주의 합류

로 4월 8일 개막하는 마스터스에는 양용은(38), 나상욱(27), 앤서니 김(25)을 비롯해 지난해 US아마추어챔피언십 우승자 안병훈(19), 2009년 아시아아마추어챔피언십 우승자 한창원(19) 등 모두 6명의 한국 및 한국계 선수들이 마스터스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해남화원관광단지

## ‘오시아노 골프클럽’ 개장

해남 화원관광단지의 첫 결실인 오시아노 골프클럽(9홀·파36)이 지난 27일 한국관광공사 이창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지난 2003년 착공한 오시아노 골프장은

40만9000㎡ 부지에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 퍼블릭 코스 9홀(길이 3352m)과 티하우스(그늘집), 관리동, 골프연습장,골프스쿨(파3, 3홀)등을 갖추고 있다.

이창 사장은 “오시아노 골프클럽의 개장으로 골프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 서남권의 골프투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1-530-7750~1.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